

‘웰다잉(Well Dying)’을 아십니까?

글 | 김종영(자유기고가)

잠 박고 잠 사는 웰빙에 이어 잘 죽는 웰다잉이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얼마 전부터 사람들 사이에 큰 관심을 불러일으킨 웰빙은 이제 익숙한 말이 되었고 광고와 음식, 나아가 생활 전반에 걸쳐 확산되었다. 삶이 있으면 죽음이 있기 마련이다. 그래서 최근에는 웰빙에 이어 ‘품위 있는 죽음’으로 표현하는 ‘웰다잉(Well Dying)’이 관심을 받고 있다.

인류는 사실 선사시대부터 오늘날까지 늘 웰빙을 추구하며 살아왔다. 문명의 발전과 과학기술을 이용해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다양한 문물과 문화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가장 쉬운 예로 들 수 있는 것이 음식이다. 하우스재배와 냉장고 등 계절적 한계를 뛰어넘는 문명의 이기를 이용하면 제철에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사철 아무 때나 먹을 수 있다.

인류 역사의 하루 하루가 웰빙 그 자체인 셈이다. 그러고 보면 지금 유행하고 있는 웰빙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소박하고 일상적인 삶을 조금 바꾼 형태, 그러니까 라이프스타일을 바꿔보려는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웰빙을 최우선으로 한 삶이라고 해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는 유명한 근거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 없다.

인간다운 삶을 위하여 - 안락사와 호스피스

웰다잉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안락사와 호스피스이다. 호스피스는 죽음을 앞둔 말기 암 환자와 그의 가족을 사랑으로 돌보는 행위이다. 남은 여생동안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신체적·정서적·사회적·영적인 돌봄을 통해 삶의 마지막 순간을 편안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하며 사별 후 가족이 겪는 고통과 슬픔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총체적인 돌봄(holistic care)을 뜻한다.

안락사는 살아날 가망이 아주 희박한 환자가 극단적 고통에 시달릴 때 독물이나 기타의 방법으로 빨리 죽음을 맞도록 도와주는 '자발적·적극적 안락사', 그리고 의식을 잃고 인공호흡 장치로 겨우 목숨을 이어가는 식물인간과 뇌사로 판명된 사람에게서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는 형태의 '소극적 안락사'로 나누어지는데, 고통 없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안락사의 의미이다. 물론 안락사는 환자와 그 가족, 그리고 의사 등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도저히 회복 가능성이 없다는 전제를

토대로 한 심사숙고여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안락사와 호스피스 모두 세속적인 욕망보다는 인간다운 삶을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렇기 때문에 생을 아름답게 마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인간에 대한 또 하나의 예의이기도 하다.

관련 법규 나라마다 조금씩 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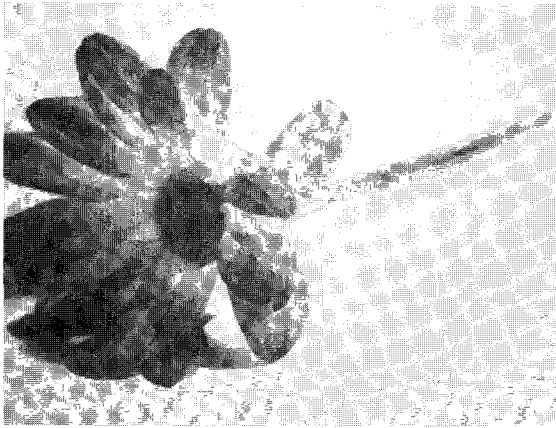
프랑스가 지난해 살아날 가능성이 희박한 환자에게 '존엄사(尊嚴死)'를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포함한 '인생의 마지막에 대한 법'을 제정한 것이나 미국, 대만 등이 호스피스 관련법을 제정해 시행하는 것도 이러한 '예의'에서 비롯된 것이다.

안락사는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 네덜란드는 2000년 11월 세계 최초로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반면 미국은 40개 주가 안락사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일부 주에서는 존엄사법과 고통경감법 등이 시행되고 있다. 영국은 법률로는 허용하지 않지만 판례상 허용된 예가 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1996년 법제화했다가 6개월만에 폐기하였고 독일은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죽일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고의가 인정되면 최고 종신형을 받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3년부터 2년 동안 말기 암환자 호스피스 시범사업을 시행했으나 관련법을 제정하지 못하고 있다.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해 인위적으로 생명을 단축시키는 행위는 형법상 촉탁살인죄나 자살방조죄가 성립한다. 그러나 소생 가능성이 없는 식물 상태의 환자에 대해 인위적인 생명 연장 장치를 제거하는 것과 같은 소극적 안락사의 경우에는 실제로 병원 등에서 암묵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실정이고, 이를 실정법으로 처벌하는 경우도 드물다.

품위있는 죽음을 위하여...

이제 우리도 '품위 있는 죽음'에 대해 새롭게 다가설 필요가 있다. 자살 외에는 아무 것도 할 수 없고 참을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의 물리적·심리적 고통을 무



조건 방지할 수는 없다. 웰다잉이 화두가 되고 있는 것도 이 문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전남 보성군에 있는 대원사 주지인 현장 스님은 '올바른 웰빙을 위해서는 웰다잉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는 '꽃향기는 천 년을 가지만 사람의 덕과 가치는 만 년을 간다(人德萬年熏 花香天里行)'는 말이나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虎死留皮 人死留名)'는 말과 통한다고 볼 수 있다.

단순히 생명활동이 정지되어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지 않는 생물의 상태가 아니라 죽음을 피할 수 없고 남은 생이 고통이자 희생이 불가한 사람이라면 죽음을 받아들이고 가능한 한 편안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은 아름답고 잘 죽을 수 있는 권리도 보장해줘야 한다.

시인 이형기는 <낙화>에서 '가야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의 아름다움을 말하고 있다. 사람들은 삶과 죽음이 모두 행복하기를 바란다. 그렇다면 웰다잉은 웰빙에 이르는 또 다른 길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